

# 내가 쓰는 전기 내가 만든다...2045년 에너지 자립도시 완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점

### <2>AI-그린 뉴딜

그린뉴딜 민관 거버넌스 구성  
‘기업RE100’ ‘광주RE 100’ 실현  
시민 에너지·햇빛 발전소 구축  
전기·수소차 34만여대 보급

“내가 사용하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쓴다” 이른바 ‘내전 내만’ 캠페인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내세운 그린 뉴딜 목표다. 핵심은 2045년까지 외부로부터 전력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후 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광주형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며,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에 이어 탄소중립도시 추진 위원회 등도 구축하고 있다.

시는 또 2030년까지 기업이 필요한 전력 전량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까지 광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광주 RE 100’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이 전기를 만들어 쓰는 ‘시민 에너지 발전소’, 마을·학교 단위 협동조합을 통해 태양광을 생산하는 ‘햇빛 발전소’, 태양광 발전 연구센터 등을 구축한다. 공동주택·빌딩·공장·도로 등에

그린 에너지를 보급하고 AI 기반 소규모 자원 거래,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도 추진한다.

2045년까지 전기·수소차 34만여대, 충전소 2만 9500여개도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올해 AI-그린뉴딜 사업으로 녹색 전환·기후 안전·녹색산업 도시를 조성하는 3대 전략, 62개 세부 사업도 마련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단계·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만든 에너지협동조합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이익을 공유하는 ‘시민 햇빛발전소 설치사업’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그린 에너지 저장장치(ESS) 발전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첨단 산단에는 올해부터

195억원을 투입, 민간 중심의 전력거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의료시설 등 47곳과 중공 후 15년이 지난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 3500세대에는 160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교통·수송 분야에서는 44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된 수소 시내버스를 확대하고 노후 경유 차 7300여대 조기 폐차, 전기차 1200여대 신차 구매를 지원한다.

영산강 대상공원 등 14곳에는 시비 350억원 등을 투입하고 민간공원 9곳에는 민자 1조807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토지 매수에 들어간다. 국내 첫 도심 속 국가 습지인 장록습지는 환경단체, 주민들과 소통으로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광주시의 선도적 그린뉴딜 정책을 지켜

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이례적으로 장관 명의의 감사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환경부 장관은 당시 “광주시의 2030년 기업 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는 다른 지방정부에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광주에서 디딤돌을 놓아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극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1년은 광주가 고탄소 에너지 의존도시에서 시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탄소 중립 친환경 녹색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린뉴딜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녹색 혁명을 광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세계 녹색 시장을 광주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행정력 부재·사업자 갈등에...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뒷걸음질

시 “사업자 제출 평당 1898만원” 권고  
분양 방식·가격 등 ‘재검토’ 반복  
사업자 “제출한 적 없다” 반박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의 갈등 조정 능력 부재와 사업자 내부 갈등 등이 겹치면서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시는 ‘민관 협치 방식’을 내세우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 협의회를 거친 끝에 사실상 선분양을 전제로 하는 권고안까지 마련했지만, 사업 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평당 분양가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정 협의는 커녕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22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조정협의회 4차 회의를 지난 21일 열고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선분양을 기준으로 제시한 평당 분양가 1898만원(수익률 6%)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 인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내부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양측도 4차 회의에서 선분양 기준으로 평당 1600만원대를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 배제됐다.

박남주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한양에서 2% 수익률을 기준으로 평당 1600만원대를 제안했으나, 낮은 수익률은 금융권의 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측이 제시한 평당 1898만원대를 기준으로 추가 인하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논란이 됐던 80평형(분양), 45평형(임대) 세대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에 제외됐던 85㎡ 이하 국민 주택 383세대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SPC 참여 주주 내분 등으로 논란이 일자 시,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그동안 마련한 4차례



“1인 1그루 나무심어 지구 살립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오른쪽 두번째)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1인 1그루 나무심기’ 캠페인을 벌였다.

갈친 사업 계획 변경안을 무시하고, 지난해 6월 실시계획 당시 안을 놓고 원점에서 협의를 재개하기로 결론냈다.

하지만 조정협의회를 통해 대형 평수 제외, 중소형 평수 포함에 합의했을 뿐 사업 규모 등에 대한 협의의 성과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선분양 또는 후분양 등 방식 결정, 소송으로 비화한 주주 내분, 분양가 등 관련 해결방안도 진척된 게 없다.

광주시의 이날 발표에 대해 사업자들은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평당 1900만원대의 후분양 방식을 추진중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두가지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

해 선분양 기준 평당 1898만원의 시뮬레이션안을 제출했을 뿐이며, 광주시의 주장처럼 합의안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다”면서 “특히 지난 3차 협의회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의한 산출서상 선분양으로는 평당 1200만원 이상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분양 사업계획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현재처럼 분양가 인하가 사업계획 변경의 목표였으면, 지난해 6월 11일 이후 6개월 간의 협의기간동안 분양가 인하의견을 제시했어야 하는데도, 비공인면적 증가의 최소화를 주장하며 오히려 후분양안을 제안했고, 사업자측에서 수용

한 것”이라며 “특히 협의 등에 따른 사업지역으로 토지보상비가 당초 4000억원에서 5300억원 이상으로 1300억원이 넘게 상승했고, 사업이 추가 지연되면 보상비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선 차익보전 방안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광주시는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과 평당 1900만원, 후분양 추진 등에 합의했으나, 고분양가 논란과 사업자 내부 분란 등을 이유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특정한 개입설 등 각종 의혹이 휩싸이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첨단복합 물류기업 등 유치 전남도, 2276억 투자 협약

### 토소남해실리카·에스피씨장성물류

전남도는 22일 한·일 합작 실리카 제조사인 토소남해실리카, 첨단복합 물류업체 에스피씨장성물류 등과 227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기업 대표와 권오봉 여수시장, 임운섭 장성군 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로 1027명의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토소남해실리카는 여수국가산단 6600㎡ 부지에 276억원을 투자해 타이어 완성품 재료인 실리카를 제조한다. 남해화학의 입지와 일본 토소실리카의 첨단 소재기술 등 두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2017년 첫 실무협의부터 지난해 합작법인 설립까지 우려곡절이 있었지만, 상생을 통한 기업발전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협상에 임한 결과 합작투자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주)에스피씨장성물류는 장성 동화면 5만8000㎡ 부지에 2023년까지 2000억원을 투자해 3PL 첨단 복합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물류 기반 확장을 통한 연관산업 연계 발전은 물론 젊은 층을 중심으로 1000명 이상의 직간접적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박형민 에스피씨장성물류 대표는 “장성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물류사업의 최적지로 판단해 투자하게 됐다”며 “국내에선 드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물류업체에 대여하는 3자물류(3PL) 운영방식을 통해 내로라하는 물류기업 유치로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이후 3월 말 현재까지 749개 기업과 19조199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